

민 정 실	음 진 천
-------------	-------------

B U D D H A N A R 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2005년 새해 법회 및 초하루 기도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및 교리 탐구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다섯째주 일요일 법회 각자 집에서 기도 정진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범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범구경: - 네 영혼을 위해,
 나와 남을 위해,
 아무도 네 의무를 저버리지 못하게 하라.
 자기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라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를 따르게 하라.

Let no man endanger his duty, the good of his soul, for the good of another, however great. When he has seen the good of his soul, let him follow it with earnestness.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5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해외교구 설치에 관한 의견



불족석

한국불교에 본산.교구 개념이 도입된 것은 일제 때의 일이다. 1911년 조선사찰령이라는 것이 반포되면서 전국의 사찰을 33개 본산과 말사로 정리한 것이 효시이다. 그 이전에는 주로 사격(寺格)에 따라서 사찰기능이 유지, 발전되고 있었다. 창건주에 따라서 사찰성격이 규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시대에는 강제로 선교양종의 통폐합 체제를 유지하였다. 일제 때의 조선사찰령은 한국불교를 왜색화시키고,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제정했다는 면에서 분명히 악법이다. 그러나 그때의 본산지정은 역사.사상.문화 등을 고려한 흔적이 농후하다.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 통합종단으로 출범하면서 조계사 등 직할교구를 포함해서 25개교구 본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교구본사제도는 이미 1세기 이전의 안목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사는 서울에 실질적인 교구본사가 없다는 것은 년센스이다. 강남 강북으로 나누어서 적어도 네 군데 정도는 본사지정을 해야 한다. 또 사찰의 규모나 역사성으로 보아 승격시켜야 할 사찰도 적지 않다. 강화의 전등사, 영주의 부석사, 포항의 보경사, 계룡산의 동학사, 민통선 안의 건봉사(일제 때는 본사) 등은 본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사찰들이다. 이외에 비구니 본사로서 청도의 운문사, 언양의 석남사, 수원의 봉녕사 등도 본사지정에 넣어야 한다.

최근 총무원에서는 군승교구, 해외교구 등을 본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만사지탄이 있지만 꼭 성사시켜야 할 대목이다. 특히 해외교구는 반드시 본사지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유럽, 일본, 홍콩, 인도 등에는 한국의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불교는 세계화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여전히 한국불교는 세계 속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해외포교당을 활성화 시키는 일이 금년의 과제라고 확신한다. 제 2, 제 3의 승산스님은 개별적 신심이나 구호만으로 만들 수 없다. 이제 한국불교는 세계를 향해 웅비(雄飛)해야 할 때이다.

정병조/ 동국대 교수

지구 대 재앙 쓰나미

남쪽 멀리 수마트라 섬 가까운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해일 쓰나미가 세계인들의 슬픔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26일의 쓰나미가 진앙지 일대는 물론 대서양 연안 곳곳을 덮쳐 16만 명의 목숨과 함께 엄청난 재산을 앗아갔다. 대서양을 건너 6000km가 떨어진 아프리카 동부해안까지를 강타했으니, 진앙지에서 가까운 남아시아 해안은 온통 쪽대밭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쓰나미 현상은 분노하는 대지와 바다가 합작한 대재앙이다. 지난 20세기 후반에 들어 1960년 라틴아메리카 칠레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동아시아의 일본열도를 밀어부친 일도 있다. 이같은 쓰나미가 다시 일어날 조짐은 아직도 지구 도처에서 보인다. 지질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쓰나미보다 무서운 해일은 산사태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있다.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산사태 해일 피해지역은 미국이다. 그 진원지로 아프리카 북부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라 섬 화산지대를 지목한다. 언젠가는 5000억톤(ton)에 이르는 이 섬의 화산대지(臺地)가 무너져 내리고, 8시간 뒤에는 500m의 해일이 미국 동부해안을 덮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이번 쓰나미의 파고(波高)가 10m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 큰 재앙이 도사린 것이다.



요즘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보도하는 여러 매체에서, 눈을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 보인다. 아수라장(阿修羅場)이 따로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불법을 지키는 제석(帝釋)과 싸움을 일삼는 못된 귀신이 아수라다. 불경은 아수라가 머무는 데를 바다와 바다밑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 시대에도 쓰나미가 나타났는 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아수라의 근거를 바다에 두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번 재앙의 한가운데서 용케도 살아남은 사람들 거의가 아수라의 악몽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들의 황폐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차례가 되었다. 그것은 재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몫이다. 모두가 자비의 불심으로 돌아가 이들이 아수라 악몽에서 벗어나게 보시행을 실천하기 바란다.

황규호/ 언론인

불기 2549 년 (2005 년) 새해 발원문

우러러 살피옵건데,
진여의 태양은 찬란히 빛나옵고 범성의 바다는 끝없이 넓고 깊어 온 중생 온 국토를 윤택케 하시니 일체 중생 근기 따라 모두를 얻고 구하는 바를 따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니 가없는 은덕을 어찌 다 헤아려오리까?
대자비 세존이시여!
오늘 불기 2549 년 신년 범회에 인연을 같이한, 붓다나라 가족과 그 일문 권속들이 부처님의 지극하신 가호력에 힘입어 일심 정진 하오며 발원하옵니다.
바라옵건데, 자비 광명 비추시어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제 저희 붓다나라 가족들은 밝고 상서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스스로의 생명이 밝은 불성이라는 믿음 아래 기쁜 마음으로 범성공덕을 간직하고 밝은 얼굴, 밝은 말로 부처님 마음 세계의 창조력을 실현하여 어둠과 불안과 고난을 물리쳐 부처님 제자로서의 영광을 키워 갈 곳곳한 보살이 되고자 서원하옵니다.
대자비 세존이시여,
저희들 신년의 새로운 서원을 가슴에 새기면서 정성 기우려 합장 계수 하오며, 부처님 자비 광명에 예경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데,
오늘 신년 범회 도량에 모인 일체 대중에게 각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옵고, 이 수승한 인연을 함께 한 공덕으로 어느 때나 불보살님의 크신 위신력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와 용기를 샘물처럼 솟아나고 자비와 위덕은 햇살처럼 걸림 없고, 구국구세의 서원은 바다처럼 물결쳐지이다.
온갖 지은 바 지난 동안의 미혹의 자취는 일시에 사라지며 뜻하는 바는 모두 부처님 정법에 근거하옵고 행하는 바는 폭풍처럼 막힘 없이 자재하여지이다.
선망 부모 일문 권속들은 모두 구품 연대에 태어나옵고, 가족과 권속들은 안과 길상 하오며 일체 재난 즉시 소멸되어 사업이 번창하고 지혜와 수복은 수미산을 더하며 병고 중에 있는 자는 즉시 쾌차하고 학업을 닦는자는 빛나는 지혜 드러나며, 염불한즉 삼매에 들게되고 참선한즉 의정이 독로하며 부처님의 세계를 관한 즉 무량 청정 현전하고, 뜻하는 바 거룩한 소망들이 날날이 모두 성취되어 마침내 무상 보리를 이루어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갚아지이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법회소식 NEWS

- 을유년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2005 년에도 2004 년과 마찬가지로 주위 분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불자님들 가까이 계신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많이 전 합니다.
- 홍보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2548 년 성도재일 철야정진에는 많은 불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철야 정진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철야기도로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모든 망상과 번뇌들도 모두 떨치고 밝은 마음 맑은 마음으로 불기 2549 년 (2005 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2 월 9 일이 음력으로 설날입니다. 불국사에서서는 첫째주인 2 월 6 일 새해 법회 및 초하루 기도 법회를 가집니다. 바쁘시더라도 신도님들은 모두 새해 법회에 동참하셔서 부처님전에 떡국공양도 올리고 같이 떡국 공양도 하면서 덕담도 서로 나누시다. 떡국 공양후 웃놀이도 있습니다. 웃놀이에서 이긴팀들에게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줄 새배돈도 준비해 놓았으니 어린 불자님들도 법회에 동참할수 있도록 배려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불국사에서 부처님 오신날 연등 제작에 필요한 연잎을 쪼고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주지스님이나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3 제주 전법기도와 교리 탐구 시간에는 지원이 엄마인 감로수 보살님께서 신도님들께서 건강하게 사실수 있는 운동중의 하나인 요가 실습이 2 부 법회 시간에 있겠습니다. 감로수 보살님은 결혼전에 에어로빅 강사 생활도 하기도 하셨던 분이므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제주 법회에는 108 대참회 (자비수참)기도가 있겠습니다. 3 제주와 4 제주 법회에 동참하시는 신도님들은 간편한 복장으로 법회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국사 주지 스님이 2 월 4 일 워싱턴대학 의과대학에서 3:15 분에서 4 시 45 분까지 “Buddhism as it relates to health care in real cases of faithful people” 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집니다. 미래에 환자들을 돌볼 학생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새해 벽두부터 동남 아시아에 비극 쓰나미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인들이 모두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황폐한 이들의 마음을 어루 만져 주고, 모두가 자비의 불심으로 돌아가 이들이 아수라 악몽에서 벗어나게 보시행도 실천들 하시기 바랍니다.
- 불국사의 정신적인 지주이신 강석주 큰스님의 49 제 참석차 한국에 일시 귀국하셨던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이 1 월 14 일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그동안 스님이 안계시는 동안 불국사 신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사찰과 법당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1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27 번 을묘생 덕문 손형석, 228 번 정사생 대은심 손지영, 229 번 기미생 바라밀 서영주, 230 번 기사생 박진봉, 231 번 무인생 김순옥, 232 번 계묘생 박기원, 233 번 을사생 김영숙, 234 번 병자생 박서정, 235 번 무인생 박성진, 236 번 임자생 유행석, 237 번 을묘생 이경주, 238 번 임오생 유동원, 239 번 경진생 김도연, 170 번 정창준 복위 연일후인 정원조 영가 - 인등기도 및 전법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 제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 현재 불국사에서 지봉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성불하십시오. -
- 부다나라 템플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니다.